



테마가든 스케치-원제 ① 겨울가든의 즐거움



겨울정원을 유지하는 상록신디바페종

가을이 오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 수면을 준비한다. 때문에 흔히 겨울의 정원은 오히려 삭막함으로 표현되고 한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면 매우 재미있는 즐거움을 연출하기도 하고 풍요롭고 따뜻한 경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가지만 남은 휘휘한 고목아래는 가을에 못 다한 낙엽과 마른 가지 그리고 쓸쓸함이 찾아온다.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 정원에 대한 표현을 별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록성의 식물들을 이용한 색다른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이는 향유한 겨울 정원을 되도록 좀 더 덜 황량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상록성의 식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상록의 식물만으로 연출한 봄과 여름과 가을의 정원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겨울을 위한 아름다운 즐거움의 정원을 꿈꾸며 노력을 해 왔다. 겨울도 겨울 나름의 정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을 간혹 발견한다. 그라스류들의 마른 풀잎과 상록의 유카, 그리고 겨울에도 꽃꽂이 서서 바람을 이겨내는 큰쟁이비루 만주, 상록성의 패랭이와 새털류 또한 아름다운 조형물까지 물론 잘 놓인 조각석도 겨울의 보석이다.

그러면 겨울 정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연출하면 효과적 일까?

우리는 혼합식재를 상상한다. 계절별로 우수한 식물들을 여러가지 형태와 패턴으로 혼합을 하여 봄부터 가을



고미진구가 발산하는 아름다운빛도 겨울조경의 중요한 소재이다.

까지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또 겨울에 그 가지나 줄기가 아름다운 식물들을 혼합식재의 기법으로 겨울을 연출하며 식재를 할 수 있다.

상록은 아니지만 겨울식물로 좋은 품목으로는 해란국화, 타래꽃, 하얀응달, 연, 펜스테몬, 고사리류, 그리고 많은 종류의 그라스 종류가 있다. 상록의 식물로는 구슬갯병이, 너도부추류, 상록패랭이류와 사철나무의 여러 품종, 속새, 송아종류인 헤드라, 물장미, 무늬맥문동과 맥문동, 인동류종 로니세라, 수호초, 꽃잔디종 레드킴, 개란꽃, 그리고 많은 새털류, 바위솔, 배란향, 유카의 무늬종인 브라이트에프, 골든써드, 사사 등이 대표적인 상록의 식물이다.

그러나 상록의 식물만을 심는다면 겨울 정원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있다.

임제감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들 식물들이 겨울에 보여 주는 선과 잎의 질감은 물론 식물의 품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겨울식물로도 좋은 펜스테몬 상록물림

손길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트리를 겨울의 대표적인 풍경으로 인식들을 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상징으로 인식을 한다.

자, 아침에 내린 이슬이 하얀 잎사귀를 감싸 안은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작은 수백개의 꼬마진구가 발산하는 따뜻한 빛의 향연을 상상해 보라. 또, 뽕나무로 만든 사슴과 거위의 몸짓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때문에 겨울의 정원은 더욱 동적이고 아이디어의 상용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우리조경을 편리하는 이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조형형상의 조형물도 적당한 배치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정원에 벌써 아름다운 눈이 내렸다면 겨울 설원함의 상징인 정원이 밝고 화사함과 꿈을 동시에 선물하는 최고의 정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울의 정원 꾸꾸기에 재미를 붙여 보는 어떨까요? ☺

Contents

● 테마가든스케치	1면
● 특집 2006년 우리꽃은.....	23면
● 대표적 조경식물군	5면
● 무늬종신디바	5면
● 소울가이드프로젝트	6면
● 한양도교종	7,8,9면
● 한양도교종	10면
●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7,11면
● 특집 2006 IFEX	12,13면
● 이원진구소	14면
● 모친부식물원	15면

특집

2006년도 우리꽃은....

* 본사 서울이전 및 각 사업장별 신입사원 확충



정원이 있는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한 본사

전년도 본격적인 자사설립을 바탕으로 2006년도를 시작하며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기획, 조정설계, 홍보, 영업을 강화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위한 'TFT'팀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이천분장은 생산 및 연구소 기능을 강화시키며 그 외의 모든 업무는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위하여 총 7명 신입사원을 확충하여 이천분장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후 각 사업장별로 배치하였다.



2006년도 신입사원

* 일조화선자원에유한공사 설립



중국 방문 기념식



새로 조성하고 있는 12만평의 부지

중국 현지에서 일조화선자원에유한공사를 설립하여 기존 중국의 각지 3곳에 나누어져 있던 농장을 산동성의 넓은 호수가 아름다운 지형에 12만평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경관식물원 및 채종포로 역할을 담당하며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맞게 될 것이다.

* 포천 부식물원 개원



포천에 부식물원을 개원하여 아름다운 꽃과 양귀비축제, 체험학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농업적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한국최초의 농업적 경관식물원을 표방하고 있다. 올해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볼거리로 고객들을 맞이할 것 이다.

* 각종 원예박람회 참가



2005년도 네덜란드 국제화훼산업전시회(Hortifair)참가를 시작으로 올해 대한민국 환경조경박람회(LAND EX2006),서울국제원예박람회(IFHC2006),동경국제플라워 엑스포(IFEX2006) 등 국제적 규모의 원예박람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시장에 '우리꽃'의 우수한 품종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특집

2006년도 우리꽃은....

* 우리꽃 가을축제 개최



전시포장이 마련된 이천연구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관공서, 조경회사, 녹화회사, 골프장, 설계회사, 대학교, 식물원 등 조경각계의 2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계절별로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보제공과 조경계의 인적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신품종 등록 및 우리바이오택 연구소 설립



상록진디페렐이가 URI2000-001이란 품종명으로 품종보호출원 되어졌고 이외에도 자체개발한 다수의 신품종들에 대한 식물신품종 등록을 준비중이다. 또한 경북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우리바이오택 연구소를 설립하여 생명과학의 새로운 유전공학기술과 지식기업을 도입하여 좀 더 폭넓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 3회 조경인상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조경인상 수상자로는 김해시기술센터, 계양구청, (주)녹지원, 정산 C.C., 중부C.C.로 선정되었다. 5백6인간의 인정으로 우리꽃 직원3명과 더불어 중국연수를 다녀왔다. 우리조경인상은 그 의미에 맞게 계속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여 좋은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 더욱 확대된 조경식재공사



환향식재 및 AR기든 등 '우리꽃'만의 식재기법으로 아름다운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해에도 다양한 곳의 조경식재가 더욱 확대되어 좋은 호평을 받았다.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⑩

Asilbe속

Asilbe속은 범의귀과로 일반적으로 노루오줌이라 불리는 식물이다. 꽃이 아름다워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속에는 세계적으로 약 12종이 존재한다. 품종에 따라 화색이 흰색, 분홍색, 빨강색 등 다양하며 키가 60cm이상 크게 자라거나 20cm 안팎으로 자라는 예성종도 있다. 아스틸베의 원자생지는 산지의 냇가나 습한곳인 만큼 수변의 그늘진 곳에 식재하면 효과적이며 수변과 음지에 다양한 색을 연출할 수 있는 소재이다. 건조에 강한 Chinensis, 다양한 특징을 살려내는 Arendsii, 키가 작은 Crispa, Japonica, 잎의 윤기가 강하며 꽃대가 아치형인 Simplicifolia,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유래된 Thunbergii 등의 6가지 품종계열로 나뉘어진다.



아스틸베 비전

비전(Astilbe chinensis 'Vision in Red')은 적색의 꽃을 7월에 피우며 키는 45cm정도 자란다. 줄기는 적색을 띄며 잎은 진녹색이며 햇빛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스틸베 퓨어

퓨어(Astilbe arendsii 'Feuer')는 8월경 강렬한 적색의 꽃을 피운다. 꽃대가 길며 키는 75cm까지 자란다.

아스틸베 글로리아

글로리아(Astilbe arendsii 'Gloria')는 6-7월에 걸쳐 하얀 순백의 꽃을 피운다. 꽃대는 짧으나 매우 다복한 형태를 유지한다. 키는 80cm까지 자라며 다화성으로 풍성하게 꽃을 피운다.



아스틸베 에트나

에트나(Astilbe arendsii 'Etna')는 6-7월경 진한 적색의 꽃을 피우며 키는 60cm까지 자란다.



아스틸베 파날

파날(Astilbe arendsii 'Fanal')은 진한 적색의 꽃을 6-7월경에 피우며 꽃대는 크고 폭이 넓다. 진한 녹색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키는 60cm 정도 자란다.



아스틸베 페더

페더(Astilbe arendsii 'Federsce')는 진분홍색의 꽃을 6-7월경에 피운다. 다화성이며 만개했을 때 매우 풍성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키는 60cm까지 자란다.



노루오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지의 냇가 또는 습지 근처에서 자라는 자생종(Astilbe chinensis var. davidii)으로 분홍색의 꽃을 6-7월경 피운다. 현재까지 수변식물로 흔히 쓰이는 품종이다.



옥상, 암석가든용 식물 ⑩

올해 선보인 꽃잔디 레드아이에 이어 새로운 품종인 꽃잔디 에메랄드(Phlox subulata 'Emerald Cushion Blue') 또한 옥상, 암석가든용 식물로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꽃은 4-5월에 피며 꽃의 크기와 자라는 양은 일반 꽃잔디와 비슷하나 화색이 은은한 보라색을 띄며 매우 고급스럽다. 잎은 상록이고 도로변 등에 군식해도 좋고 암석가든의 돌틈이나 두 세토피를 모아 심으면



“꽃잔디 에메랄드”

좋다. 특히 레드킹, 레드아이, 흰꽃잔디 등과 번갈아 심으면 더욱더 그 화색이 돋보인다. 보석과 같이 청명한 화색의 보라꽃잔디 에메랄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꽃잔디도 이제는 다양한 품종의 적용으로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꽃잔디 에메랄드는 봄의 아름다움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는 분

홍은 소재이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시리즈 ⑩



지난 9월에 열렸던 우리꽃 가을축제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여보았던 품목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황금조팝(Spiraea japonica 'Gold Mound')이다.

무포장에 일렬로 심겨져 있던 황금조팝은 멀리서 보아도 화 눈에 띄는 정도로 황금색들결을 이루며 참석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황금조팝은 일부 생산자들에 의해서 제때는 보여왔지만 아직은 크게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꽃”에서 본격적으로 그 적용성이 뛰어난 관목 소재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조경에 있어서 관목의 이용은 천연원물적으로 화양목 또는 침죽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관목도 다양하고 새로운 소재로의 변신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품목이 삼색조팝과 더불어 황금조팝이라 할 수 있다.

황금조팝은 삼색조팝이 봄의 신초가 나올때부터 적색을 띄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노란색의 신초가 나오며 계속해서 가을까지 황금색을 유지한다. 키는 약 40cm 정도

있고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

“황금조팝”

도까지 자라며 초장은 적상에 의해 원하는 대로 조절해줄 수 있다. 꽃은 6-7월에 분홍색을 꽃을 피운다.

서두에 말했듯이 화양목이나 침죽대신 지지체의 도로 변이나 공원의 화단 등에 열식 혹은 군식하면 좋고 삼색조팝과 같이 번갈아 식재해도 좋다. 적상 등 관리를 잘해 주면 식물의 형태를 잘 유지해주고 잎의 색감이 좋으므로 문양을 내거나 할때 이용해도 좋다. 그리고 골프장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곳에 군식하면 주변잔디의 그린색과 잘 어울리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육이 강건하고 병해충에도 강하여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 좋은 모양을 유지하여주기 위해 순자르기는 적기에 해주는데 좋고 시비는 많이 해주는데 것이 자람에 좋다.

번식은 주로 삼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반 지피식물에 비해 재배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타 관목에 비해서는 빠른 성장을 보인다.

아름다운 황금빛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으로 앞으로 최고의 관목소재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소재이다.



황금조팝과 삼색조팝이 봄 새순이 나온후 풍성하게 크는 모습



지난 우리꽃 가을축제에서 모주한 황금조팝과 삼색조팝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화분과 사초와 식물로 대표되는

Grass Scape 연재 ⑩

있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난 “흰줄무늬대사초”



다. 또는 다른 음지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 활용해도 좋다. 무늬가 좋아 음지목의 화단에 단독 식재해놓거나 아니면 다른 무늬대사초류와 번갈아 식재해놓으면 주위를 매우 밝게 해준다. 경사지나 소나무아래에도 식재가 가능하며 시리개등의 물담에 포인트로 식재해주어도 좋다.

번식은 봄에 포기를 분주하거나 삼목을 하면 되는데 다른 무늬대사초들이 번식이 까다로운 반면 흰줄무늬대사초는 번식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대량생산이 비교적 쉽다. 관리면에서도 별로 까다롭지 않으며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퇴비를 많이 해주면 더욱더



노란줄무늬대사초

무늬대사초류는 그 형태와 무늬에 따라 몇가지 품종이 존재한다. 흰줄무늬대사초와 유사하며 잎 가장자리에 노란줄무늬가 있는 노란줄무늬대사초(Island Brocade), 잎이 길고 가늘며 잎 안쪽에 노란무늬가 있는 대사초 ‘골드라이트’(Golden Light), 잎이 짧고 잎안쪽으로 진한 노란무늬가 있는 대사초 ‘바나나 보트’(Banana Boat)가 있고 ‘우리꽃’에서 개발한 대사초 키지노(Uri Casino)가 있다. 기존에는 흰줄무늬대사초 위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꽃’에서 키지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 구비되어 있어 2007년도부터는 구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지노

Small Garden Project ⑩



길을 걷다 보면 절묘한 미니정원을 볼 수 있다. 그 절묘한 미니정원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더없이 좋은 자연적정원이 연출될 것이다. 하지만 도심과 같은 곳의 미니정원은 조화를 이루기 보다는 포인트를 이룰 수 있는 정원이 연출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이번호에서는 화단에 두리께 경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변의 환경과 경계를 두기 위해서는 사진에 사진들이 필요하듯이 정원과 테라스, 통로는 경계가 필요하다. 명확한 화단경계는 화단내의 토양유실방지과 식물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조경물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경계물자체로도 조경의 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경계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겠다.

화단 경계의 스타일

시선의 집중이 화단내의 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화단 경계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단지

화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화단 경계”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의미의 소재가 아닌 조경물의 느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경소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화단 경계의 소재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백철, 유령풍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천재 구조물, 여러 가지 모양을 구사할 수 있는 테라코타, 전원적인 느낌의 통나무 등 다양하다. 하지만 캔과 병과 같은 재활용품을 화단 경계에 이용할 수 있듯이 특정한 소재나 방법에 구애받음은 필요 없다.

단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화단의 특성과 동떨어진 소재를 선택한다면 화단을 돋보이게 하기 보다는 그 화단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해질 수가 있다.

백철

백철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으며 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화단경계 소재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백철을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면 지면으로부터 45°의 각을 만들어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천재구조물

천재구조물은 그 화단의 규모와 분위기에 맞춰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철보다는 높은 제작비가 들지만 화단의 분위기와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다.

통나무

통나무는 가로로 세로로 잘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통나무를 이용한 화단 경계는 자연그대로의 소재이기 때문

에 정원의 느낌을 만들기 용이하다.

테라코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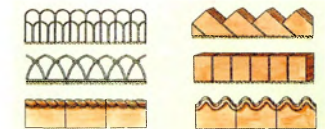
테라코타는 그 자체로 조경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원이나 잘 어울리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요란한 모양의 테라코타는 자칫 잘못하면 정원에 시선을 빼앗을 수 있다.

자연석

자연석으로 정원경계를 시공할 때는 강도가 강한 화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자연석을 사용하게 되면 통나무소재보다 무거운 느낌과 차가운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을 심려 적절한 정원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더없이 좋은 조경소재가 된다.

이러한 소재들 외에 그 정원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들도 다양하다. 이렇듯 수많은 정원경계소재들 가지고 정원의 경계를 두면 정원의 아름다움을 증가시키며 또한 아름다운 정원을 오랫동안 보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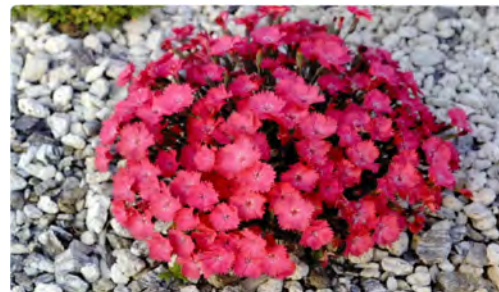
현장히트 품종

우리정서에 맞는 장기개화형 속근코스모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객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인기있었던 품종이다. 골판장, 골원, 고속도로변 등 모든곳에서 그 역량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미 장기개화형이며 우리정서에 맞는 것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이 배어있음이 큰 작용을 했으리라 본다. 내년에는 ‘우리꽃’이 개발한 품종인 속근코스모스 ‘우리꽃’이 출시되어질 것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상록잔디패랭이



1. 잔디패랭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꽃방석
2. 여름에도 잊두르지 않는 상록성의 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3.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알록식물, 육상조경, 물품식재 등에 이용하면 좋다.

아름다운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꽃이 매우 아름다운 덩굴식물 품종이 다양하지만 화색 또한 다양하여 아름다운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트럼프스 등 지지대를 이용하여 품종간 혼식하거나 붉은인동 등 다른 덩굴식물들과 혼식해도 좋다. 2007년 기대되는 품종중의 하나이다.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⑩

키작은 최상의 연중개화종 “스텔라원추리”



원추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꽃이다. 주위의 도로변, 화단 등에 심겨진 원추리, 왕원추리 등을 관심있는 분이라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꽃이 좋아 조경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보급, 적용되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원추리 (Hemerocallis)류는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조경용으로 매우 주요하게 이용되어

지고 있는 소재이다. 그리고 원추리류는 대부분 양지 뽕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소재로 그 활용폭이 넓다.

이번에 소개할 스텔라원추리 (Hemerocallis hybr. Stella D Oro)는 키가 작은 뽕만 아니라 대부분 원추리류가 여름에 개화하는데 비해 스텔라원추리는 5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장기개화하는 품종이어서 다른 어떤 품종보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키는 약 20-30cm정도 지리고 번식이 빨라 식재후 1년만 지나도 분얼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화색은 도라색인데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 꽃이 매우 탐스럽고 많은 꽃대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꽃이 장기개화하므로 주로 혼합식재시 알록식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도로변이나 화단 등에 군식하여도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 좋다. 극음지의 경우 생육이



불량해지지만 어느정도 일조량이 유지되는 환경수 아래 반음지에서도 잘 지리고 호스타 등 음지식물과 함께 식재해도 잘 어울린다. 또한 물과도 잘 어울려 계류주변에 노루오줌, 그라스류 등과 잘 조화를 이루며 식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키가 작고 기르기가 쉽기 때문에 화분 등에 담아서 가정에서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소재이다. 반식은 분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꽃을 많이 피우는 다화형식물이므로 토비를 많이 해주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병충해의 경우 다른 원추리류와 마찬가지로 꽃대를 중심으로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방제가 필수적이다. 그 외에는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잘 자라는 소재이다.

향기좋은 새로운 개념의 사루비아 속근사루비아



1.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4품종의 속근사루비아
2. 매년 교체할 필요없이 1회식재로 OK
3. 품종별 화색, 크기, 향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선택 가능
4. 화단, 도로변, 식물원 등에 군식, 열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사용하면 매우 좋다.

화려함의 최상 개량후룩스



음해들이 새로운 5품종을 출시하여 총 20품종을 선보였다. 그 화려함에는 어떤 품목보다 빼어난 소재이다. 그리고 빨강, 분홍, 주황, 보라 등 다양한 색상의 품종들이 그 화려함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다. 이제 20종의 개량후룩스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봄 꽃방석 꽃잔디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지면이 빠른 최고의 꽃방석
2. 군식하거나 육상, 암석가든용으로 잘 어울리는 소재
3. 품종간 혼식하였을때 더 잘 어울려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개량앵초

다양한 화색의 꽃무리



1. 이른봄 화려한 꽃을 연출
2. 다양한 화색의 꽃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화색 혼합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4월
초장 10~15cm

무늬금계국

생육이 강한 고급경원용



1. 키가 작은 무늬줄 금계국
2. 잎의 무늬가 좋아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노랑
용도 양지
화기 6~9월
초장 40~50cm

알키밀라

어디에나 적용가능한 고급조경용



1. 황단용, 암석가든, 라인식물로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2. 스프레이형의 노란꽃은 철화용으로도 인성맞춤

화색 노랑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5~6월
초장 20~25cm

펜스테몬 상록엽

하얀색 꽃무리와 붉은잎의 조합



1. 광택용, 암석가든, 라인식물로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2. 꽃과 붉은 잎은 포인트식물로 좋다.

화색 하양
용도 양지
화기 7~8월
초장 50~60cm

구름국화

다양한 화색의 꽃무리



1. 봄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2. 건조에도 강한 최고의 화단식물

화색 보라
용도 양지
화기 4~5월
초장 15~20cm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노니세라

키작은 관목형 신소재



1. 잎의 무늬와 질감이 뛰어나다.
2. 화단에 포인트식물 또는 라인식물로 좋다.

화색 보라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2월
초장 20~30cm

초롱꽃 켄트벨

금강초롱과 비슷한 모양



1. 화색이 진하고 화수가 많아 고급조경을 소재
2. 생육이 기타 초롱꽃에 비해 월등히 강함

화색 보라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7월
초장 40~50cm

원뿔꽃

화색이 깨끗한 토종의 아름다움



1. 노랑색이 섞인 흰색의 꽃잎은 매우 화려하다.
2. 꽃과 잎에 수분지 및 어떤 진소에도 좋다.

화색 하양
용도 양지
화기 5~6월
초장 60~80cm

꽃과 잎의 질감이 뛰어난 돌장미

암석가든에 잘 어울리는 소재



1. 화색이 다양하며 화녹색의 잎은 질감이 뛰어나다.
2. 줄구연, 돌틈에 식재하면 매우 잘 어울린다.

화색 혼합
용도 양지
화기 4~5월
초장 10~15cm

붉은잎동자꽃

화려한 꽃과 조밀한 잎



1. 일반 동자꽃에 비해 꽃이 진하고 화려하다.
2. 화단지 뿐만아니라 반음지에서에도 생육이 좋다.

화색 주황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9월
초장 30~40cm

피복력이 뛰어난 잔디대용식물 카펫주름잎

양, 음지, 견습자를 가리지 않는



1. 잎도가 조밀하며 담요에도 매우 좋다.
2. 잎면지의 잔디대용 분만아니라 수변 혹은 습지가 많은 장소의 피복식물로 좋은 소재

화색 보라,하양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5~8월
초장 5cm

임가 꽃이 좋은 벚조향 황금배초향

주변을 밝게해주는 향기식물



1. 생육이 강건하고 향기가 매우 좋다
2. 황금색의 잎사래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화색 보라,하양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8~9월
초장 50~70cm

하얀색 금낭화

색다른 느낌의 조경소재



1. 양지 및 황금수이래 적용이 가능한 소재
2. 가정의 문화정으로도 좋다.

화색 하양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4~5월
초장 50~60cm

양조양은 꽃과 조밀한 잎 비단너도부추

아담한 초형의 겨울상록소재



1. 동그란잎과 보드라운 잎의 조합
2. 금단, 든지 등의 대안적에 활용하면 좋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
화기 4~5월
초장 10~15cm

화색이 다양한 돌꽃 파스텔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1.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2. 화색이 아름다운 고급정원용, 공원, 골프장 에 인성맞춤

화색 혼합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10월
초장 50~60cm

순백의 할미꽃

봄을 알리는 새로운 할미꽃



1. 생육이 좋은 화상의 꽃
2. 봄화용으로도 인기

화색 하양
용도 양지
화기 3~4월
초장 15~20cm

화려함이 결집된 메가나매발톱

봄의 화신, 화려함의 최상



1. 매우 아름다운 매발톱으로 화색이 다양하다.
2. 공원, 골프장, 전관주택 등 최상의 봄식물

화색 혼합
용도 양지
화기 4~5월
초장 30~40cm

전상의 아름다운 아이슬란드뽕배

대면적의 최고 이벤트



1. 꽃이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2. 공원, 든지 등의 대면적에 활용하면 좋다.

화색 혼합
용도 양지
화기 4~5월
초장 25~30cm

잎이 길고 아름다운 매트형 실유카 브라이트에지

황금색의 밝은 무늬줄



1. 전혀 새로운 겨울 조경이 가능하다
2. 무늬가 뚜렷하고 질감이 좋아 독립수로도 매우 좋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
화기 7~8월
초장 50~60cm

잎이 작고 조밀한 바위술 잔디파랭이

화색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 초형이 매우 아름답고 귀여운 바위술
2. 습지에 강하고 문장을 내는 데 좋다.

화색 하양
용도 양지
화기 7~8월
초장 5cm

춥추름의 아름다운 꼬리줄 꼬리줄 이브

자주빛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1. 화색이 선명하고 다화성이다.
2. 두나기 좋고 먹기든, 옥상조경에 적절한 소재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9월
초장 40~50cm

영이 아름다운 카렌트 초립 삼색조팝

가을의 단풍은 일품



1. 향기색잎에 붉은빛을 띠는 새송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2. 노란, 붉은, 흰색 등 다양한 색상에 활용하면 좋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7월
초장 40~50cm

가을에도 상록의 아름다운 무늬 실유카 브라이트에지

황금색의 밝은 무늬줄



1. 전혀 새로운 겨울 조경이 가능하다
2. 무늬가 뚜렷하고 질감이 좋아 독립수로도 매우 좋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7~8월
초장 50~60cm

향연이란 여름화신 왜성모나단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이 황기가 뛰어나며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8월
초장 50~60cm

아색적인 꽃잔치 니포피아

내한성이 강한 품종



1. 지피재에 뛰어나다.
2. 두나기 좋고 먹기든, 옥상조경에 적절한 소재

화색 노랑
용도 양지
화기 6~7월
초장 10cm

산이 그루 상록의 황금포인드 사초 에버골드

식물품이 좋은 무늬줄



1. 꽃이 매우 조경하고 화려하다
2. 재배가 매우 용이하다.

화색 노랑
용도 양지
화기 6~7월
초장 50~60cm

화색이 부드럽고 깨끗한 왜성모나단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이 황기가 뛰어나며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8월
초장 50~60cm

향연이란 여름화신 왜성모나단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이 황기가 뛰어나며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8월
초장 50~60cm

아색적인 꽃잔치 니포피아

내한성이 강한 품종



1. 아색적인 꽃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주목
2. 글로징 디하루스 주변에 적용하면 일품형성 하주면 매우 좋다.

화색 혼합
용도 양지
화기 6~7월
초장 60~70cm

산이 그루 상록의 황금포인드 사초 에버골드

식물품이 좋은 무늬줄



1. 잎은 부드러운무늬도 질감이 뛰어나다
2. 점식나열을 하거나 혼합식재 및 암석가든의 포인트 식물로 좋다.

화색 혼합
용도 양지
화기 6~7월
초장 20~40cm

화색이 부드럽고 깨끗한 왜성모나단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 꽃이 매우 조경하고 화려하다
2. 재배가 매우 용이하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8월
초장 50~60cm

향연이란 여름화신 왜성모나단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이 황기가 뛰어나며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분홍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8월
초장 50~60cm

극건조와 복사열에 강한 들꽃잔디

암석,자갈 등과 잘어울리는 상록식소재



1. 건조,비열,추위 및 습기에도 강한 매우 귀여운 식물
2. 옥상조경, 자갈가든에 이용시 조그만 군락을 형성 하주면 매우 좋다.

화색 하양
용도 양지
화기 4~5월
초장 10cm

꽃이 화려한 덩굴성 초본식물 숙근스위트피

올라라화를 위한 신소재



1. 펜스꽃처럼 단독 또는 기존 덩굴식물과 번갈아 심어도 좋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자람이 빠르다.

화색 혼합
용도 양지
화기 6~7월
초장 40~50cm

수변의 아름다움 황금무늬줄살풀

생육이 강한 고급종



1. 양지 및 반음지에서에도 생육이 가능하다.
2. 연못조성시 수변식물로 활용하면 좋다.

화색 노랑
용도 양지,반음지
화기 6~7월
초장 40~50cm

영아 꽃이 모두 좋은 황금무늬빈카

음지의 새로운 무늬줄



1. 잎의 무늬가 좋아 양반 반키와 혼재해도 좋다.
2. 아바트, 공원, 도로변의 그늘이나 나무아래 식재하면 좋다.

화색 보라
용도 음지
화기 5~8월
초장 60cm

새로운 그라스 소재 들리니아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1. 시련스럽게 위로 뻗은 흰색의 그라스
2. 가을 단풍은 일품

화색 하양
용도 양지
화기 7~8월
초장 70~80cm

춥추름의 다채로운 꽃무리 스타치스

일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



1. 키가 작고 직립의 꽃무리가 아름답다.
2. 포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길경

화색 보라
용도 양지
화기 7~8월
초장 40~50cm

포복성으로 지피재에 뛰어난 음지황국

일과꽃이 뛰어난 최고의 음·양지용소재



1. 음지의 새로운 대안식물
2. 장기간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길경

화색 노랑
용도 양지,음지
화기 5~6월
초장 10cm

잎이 매우 조밀한 애기세덤

생육이 강한 그린카펫



1. 잎의 모양이 좋고 여름에도 강한 세덤
2. 옥상조경 및 건조지 녹화에 좋다.

화색 노랑
용도 양지
화기 5~8월
초장 5cm

현장 리포트 2006년도 현장속으로...

편집자주

2006년도에도 많은 현장에서 신품종을 이용한 다양한 패턴의 식재를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이미 소개되어졌던 현장과 앞으로 소개되어질 현장 등 골프장을 중심으로 2006년도 시공된 주요현장을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중부 골프장



조성을 시작한지 올해로 3년차인데 기존에는 흙 전체적으로 아지자기하게 조성했는데 비에 이면에는 14번을 주변으로 대면적으로 혼합식재와 AR가든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AR가든 사이로 계류를 넣어서 한층더 멋스럽게 연출하여 중부골프장의 최대의 명소가 되었다.

리츠칼튼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쪽으로는 폰드와 푸르른 그린의 펼쳐져있는 좋은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앞쪽 기존의 잔디밭하단에 인본성조화류를 계층별로 바꾸어주던것을 이용해 잔디밭하단의 중심이 되는 약 100m정도의 8월형 AR가든을 조성하였다. 주변 경관과 너무 조화롭을 할 이루었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경관을 보여줄 것이다.

동부 골프장



내년에 오픈하는 27홀의 신설 골프장으로 핵심이 되는 약 10,000m정도의 면적에 우리면3,4호를 녹색으로 사정하였다. 그리고 각 홀별로 핵심포인트가 되는 약 1,000m정도 되는 지역에 혼합식재를 하였다. 그리고 그라스식재, 계류식재, 세덤식재, 황금조팝 군식 이 이루어졌다. 그늘집이되는 아지 화단이 만들어지지 않아 내년부터 AR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 11월에 시공되어졌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때 다시한번 현장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하히 다루게 될 것이다.

아시아나 골프장



올 가을에 시공된 현장으로, 3곳의 혼합식재화단과 2곳대의 AR가든을 조성하였다. 대부분 200m가 넘는 큰 면적으로 조성되었다. 스타트홀인구와 서코스출구쪽으로 AR가든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전면과 서코스 핵심이 되는 2곳에 대면적의 혼합식재를 통해 기존 경관과 잘 어울리게 조성하였다. 내년 봄이면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었음을 한껏 느낄수 있을것이다.

춘천 골프장



첫해에는 혼합식재와 AR가든을 포인트가 되는 지역에 조성하였다. AR가든이 큰 호평을 받아 2년차부터 올해로 3년차까지는 계속해서 AR가든을 늘려 그늘집알 화단 등 고객의 이동과 시선의 주로 많이 머무는 곳에 조성하였다.

베어크릭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변으로 혼합식재를 하여 골프장 이용고객들의 주동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계속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린키퍼로 마감처리하여 겨울에도 항량함이 없도록 하였다. 리크코스스의 그늘집 앞에는 선향양형식으로 AR가든을 1곳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본사, 캐슬렉스 골프장, 현대대학교, 정산 골프장 등 많은 곳에서 시공이 이루어졌고 내년에 이 코너를 통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⑩ 꽃이 아름답고 기르기 쉬운 "큰꿍의비름"



큰꿍의비름(*Sedum spectabile*)은 쌍떡잎식물로서 돌나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주요분포지는 한국, 중국 북동부이며 주로 산과 들에 많이 서식한다. 줄기는 높이가 30~70cm이고 녹색을 띤 흰색이다. 잎은 마주나거나 돌려나고 다육질이어서 건조에도 매우 강하며 달걀 모양이거나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 또는 주걱

노란줄무늬꿍의비름

붉은애기꿍의비름

모양이고 길이 4~10cm이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불결 모양의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없다. 꽃은 8~9월에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산방꽃차례를 이루며 많은 수가 땀땀이 달린다. 식물체 전체를 해열제와 지혈제로 쓰고, 타박상과 열역 순환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큰꿍의비름은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이용하고, 연한 부분을 나물로 식용하며, 잎에 sedoheptulose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한방에서 췌의비름과 같이 뿌리를 제외한 전초를 경천초(景天草)라하여 7~8월에 채취하여 혈액 순환, 해열제, 피부병, 해독, 외상출혈 등에 달아서 복용하거나 즙을 내어 복용하며 외용제로 짓뭉어서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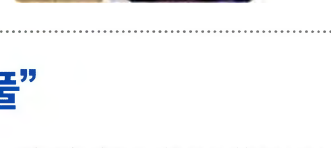
번식은 종자를 파종하거나 줄기를 절단해서 심목한다. 줄기 심목이 손쉽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줄기심목을 해주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종자를 파종할 경우 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묘상에 뿌리고 난뒤 덮을때는 표토를 긁어주는 정도로 하는것이 좋다. 깊게 묻어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강건한 식물이기 때

노란줄무늬꿍의비름

붉은애기꿍의비름

문에 기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단지 햇빛이 잘 드는곳에서 길러야 하고 너무 습이 많은곳에는 좋지 않다.

꿍의비름류는 종류가 많아 둥근잎꿍의비름, 붉은애기꿍의비름, 파란잎꿍의비름, 줄무늬꿍의비름 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배가 용이하며 특히 둥근잎꿍의비름 등은 분경용소재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토종허브를 찾아서 ⑩ 그 쓰임새가 다양한 향기식물 "툼 풀"



툼풀(*Achillea ptarmica*)은 키 35~50센티미터 자라는 풀로 우리나라 각지의 산기슭, 길旁, 개울가, 들에서 흔히 자란다. 흰색 꽃이 6~8월에 가지 끝에 모여서 피고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50~60일쯤으로 상당히 긴 것이 특징이다.

툼풀은 봄철에 흔히 먹는 푸성귀 중의 하나다. 잎이 톱니처럼 생겨 톼풀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흔히 가세풀이라고 불렀다. 쪼아진 잎 모양새가 가위처럼 갈라졌기 때문에 톼 풀은 이름이다. 이 밖에 오징초, 지레꽃, 지효 등의 여러 이름이 있다. 톼풀은 봄철에 어린 잎을 뜯어다 살짝 데친 뒤 무쳐서 먹는다. 널리 먹는 봄나물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맛은 괜찮은 편이다. 맛이 약간 쓰므로 소금물에 담가 우려 내거나 기름에 볶아 먹으면 맛이 더

좋을하다. <산농초강>이라는 중국의학책에 보면 톼풀을 신초와 하여 오래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는 약초라고 적혀 있다. 다양한 사람이 톼풀을 오래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살집이 옥처럼 고와지며 신의 세계와 통하게 되어 앞일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생기고 두뇌가 명석해지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서양에서는 다양한 톼풀종류가 있으며 향기가 좋아 드라이플라워로도 흔히 쓴다.서양에서도 톼풀을 약초로 매우 귀히 여겼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때 아킬레스가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이 풀로 고쳤다는 전설이 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풀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겼고 전쟁의 상징으로 삼기까지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톼, 대패, 칼, 낫 같은 것에 다친 상처에 잘 붙는다 하여 '목수의 약초'라고 부른다. 톼풀에는 강한 살균 작용과 수렴 작용, 지혈 작용이 있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1차 세계대전 때에도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데 톼을 널리 짓뭉어 붙이거나 말려서 가루내어 쓰거나 고약을 만들어 붙이거나 달인 물로 상처를 소독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에 힘이 나고 밥맛이 좋아지며,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치질로 인한 출혈, 장출혈, 코피, 기타 여러 출혈에도 신봉하리 만큼 잘 듣는다.

특히 뱀에 물렸을 때 날것을 짓뭉어서 물린 부위에 붙이면 부기가 내리고 독이 빠진다. 서양에서는 톼풀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데 담배 대용으로 아주 좋으며 온갖 병속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1차 세계 대전에서는 이 식물이 약이름 좋아내는 효력이 있다고 믿어 부처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기도 했다. 또 아기의 요람에 넣어 두기도 했으며 마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에 뿌리기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의 꽃다발을 만드는 데도 썼는데, 이 풀로 꽃다발을 만들면 이 풀의 위력 때문에 적어도 7년 동안은 행복이 보장된다고 믿었다. 갖가지 사랑장을 치는 데에도 이 풀을 많이 이용했다.

현재는 조경용으로 다양한 톼풀류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 집 2006 IFEX (3rd international flower expo tokyo)를 다녀와서...



편집자주

'우리꽃'은 일본 동경에서 3일간 열린 IFEX에 참가하여 우리의 우수한 상품들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현주 사원의 글을 실는다.

2006년 10월 16일 오전 두 근 반 세근 반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박종영사장과 함께 'TF' (Task Force Team)팀원 셋은 비행기에 올랐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리는 IFEX 박람회에 출전사로서 기세등등하게 도쿄 나리타공항에 착륙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시간도 없이 바이어 리스트를 붙들며 주소하네에 의지해 고교 가는 센트로 향했고, 식물을 보니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지 우리 것보다 그리지 좋지 않아 박람회 부스식재계획을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식물을 보았다. 다양한 식물들을 특성대로 배치해 놓은 모습과 그들 문화에서 통할 만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보면서 일본 화훼시장을 새롭게 느껴보았다.(사진 1,2,3)



박람회 날보다 3일전에 도착한 우리는 2일 동안 고향 방문없이 가든센터와 농장을 돌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과 우리가 일본시장에 내어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무인의 목표들 품으며 하루하루를 일본 땅을 배회했다. 그 와중에도 우리부스를 어떻게 테크레이션을 해야 할지가 매우 고민스러웠고 많은 비용과 좋은 협찬을 받아 화려하고 눈에 띄게 꾸며놓을 경쟁사들의 부스를 보자니 조금해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린 한국인이기에 하루란 짧은 시간을 가지고 부스를 꾸미기 시작했고 장해보고자 하는 말이 몇 단락을 읽는 자재를 구하려 이리저리 뒤쫓서 탐방을 해야 했다.(사진 4,5)

역시 사람은 밖에 나가봐야 자기나라 권한 줄 알고 자기사람이 소중한지치는 모방이다. 우리는 '우리꽃'의 스타일로 우리 것을 생각하며 그곳에 맞는 식물들을 골라 구상하며 계획을 세웠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에 사장님과 'TF'팀에게 또 다른 도전과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도 다 꾸미진 우리부스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쳐올랐다.(사진 6) 전투준비가 끝났으니 이제는 정장태에 나갈 일만 남았다. 일본 바이어들을 상대로 준비한 일본어 바우처와 말리서 형틀게 타지로 달려 오 우리 꽃의 영예, 일본이 카다복을 두둑하게 차에 싣고 우리가 3일 동안 땀과 마음을 바쳐 바이어를 만난 우리 부스를 향해 달리는 차안에서는 긴장감마저 올랐다. 박람회 전야 우리는 '화훼인'을 외치며 선물을 사자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개막식 날이다.

우선, 잠깐 IFEX를 소개해겠다.

동경에서 3번째를 맞이하는 국제플라워엑스포(IFEX 2006)는 일본의 신도시인 마쿠하리 멧세에 있는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꽤 규모가 큰 박람회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무역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다. 한해, 두해 지남수록 발원객의 수가 2배씩 늘고 있는 박람회에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번 3회를 맞이한 동경 국제 플라워 엑스포(IFEX 2006)에서는 일본의 화훼시장의 유행과 흐름과 제비와 대량구매자와의 마팅을 제공하며 다수의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초대장 배포 및 시간을 지정하여 마팅을 약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비와 바이어 리스트에서 중요한 손님을 VIP객으로 초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박람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촉진 요소를 투입시키며 주체적으로써의 노력이 컸다고 하겠다. 물론 화를 거듭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발전할 것임은 단연하리라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보를 공유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확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모색 되었을 하는 바람이 생겼다.

이번 분주하게 정리하고 바이어들의 상단을 기다리던 중 '우리꽃'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던 분들에게 꽤 많이 방문해주셔서 불려관니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하루를 보냈다.(사진 7,8,9)

일본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종을 보여 주기위해 한국에



있는 '우리꽃' 본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해가면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 컴퓨터로 비싼 프린트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사진을 뽑아 열심히 '우리꽃'을 소개했고, 하루가 지나 더욱 어둡던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두근두근 할 것 없이 내일을 향한 도전과 오늘을 보냈던 한계선에 선듯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또 다시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다음날인 박람회 2일째를 맞이하였다.

둘째 날 또한, 일본바이어를 비롯한 해외바이어들은 우리나라의 토종 꽃과 상품종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게도 이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사정남까지 직접 만드신 화환식재판매에 관심을 보였고 청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많은 비용을 쓴



며 화려하게 부스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만의 스타일을 고수한 것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감점으로 비추진듯 하여 상당히 뿌듯하였다. 우리가 일본에 간 목적은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첫째이고 우리도 그들의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으므로 시간을 내어서 한명씩 박람회를 돌아보며 알음알음 소스와 배움만한 아이디어를 머리에 새겨두기며 사진기와 스타를 두루마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과 그들의 차이는 그들의 아이디어는 바로 상품화가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았다. 머리로 생각해 봤어도 할 일을 내지 못했던 상황이 바깥이 상품포장까지 마친 상태로 우리 앞에 진열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여량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은 우리에게도 모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연구소에 보유한 식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어쩔 우리 것의 물건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차이가 하면 그들은 그 작은 식물을 가지고 다른 구별된 상품들을 재창조 한다는데

있었고 상품화하는데에 그만의 특성과 이미지를 구현하여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는 것에 있었다. 그곳에서도 다른 한국인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는 볼 것 이었다며 고개를 가로놓는다는 표정들이었다. 일본조경시장이 많이 침체되어있다고 한다. 그 틈새시장으로 아이디어 상품들이 좋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현상 또한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 될 중요한 모습이었었고 배움만한 깨리로 남겨 되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린 많은 바이어와 외부손님을 만나 보았고 수많은 설명을 거듭하면서 '우리꽃'의 일원으로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부스 정리를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만든 식재를 보면서 더욱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어. 특별한 식물들을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그곳에 오신 고객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필요한 양만 잘 챙겨가는 일본인을 보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쉬움과 뿌듯함, 그 많은 감정이 교차했고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초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더더욱 민방의 준비를 하여 그들에게 '우리꽃'으로 당당히 서리라 다짐했다. 6일 동안 손에 꼭 쥐고 다녔던 수첩은 어느새 보기 힘들 정도로 이리저리 많은 정보들이 적혀있었다. 마지막날 밤 난 그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1년 후, 3년 후, ...해야 할 일들을 그려 보았다. 내년 2007박람회에서는 '우리꽃'을 알고 있을 사람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꽃' 일원들은 세계화를 위해 더욱 발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IFEX를 계기로 일본의 바이어들이 직접 우리 연구소를 찾아주었고, '우리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를 보이시며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남았다. 시작은 작고 미약할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꽃'이 세계화를 향해 한 발짝 더 걸고 멀리 다닐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새로운 목표를 다시금 품어본다. ()



파이어스톤

경주용 타이어 전문회사가 만든 **친환경 라이너**

가정용, 옥상, 베란다 등의 소형연못 최고의 선택

EPDM 라이너!

자연친화적
뛰어난 유연성
탁월한 내구성

1. 시공 전 바닥면 정리

2. 라이너를 바닥에 깔기

3. 라이너를 접착제로 고정

4. 접착제를 바르거나 물을 붓기

5. 접착제를 바르거나 물을 붓기

6. 접착제를 바르거나 물을 붓기

7. 접착제를 바르거나 물을 붓기

8. 접착제를 바르거나 물을 붓기

9. 접착제를 바르거나 물을 붓기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은 비결정성고분자물질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물과 접촉시 내후성, 수분, 동,식물에 해로운 성분이 유출되지 않으며, 고무류의 냄새가 없어 조류, 물고기, 식물 등에 피해가 없고 열가소성 탄소체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오존과 자외선에 강하다.

판매처 : 우리꽃 (02)3412-1281~2

지상중계 이천연구소 1만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물이 트기에는 이른 새벽이었지만... 새벽안개가 조용한 정적을 가르며 이천연구소의 하루가 시작된다.

마지막 공사 현장과 출고 작업

동부C.C., 춘천C.C. 및 중부C.C. 환경대학교 식재공사가 모두 현재변에 물러 갔어서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분주해 지나갔다. 식재공사현장은 거의 마무리가 됐으며 아직 현장이 1군데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공사현장 2곳을 함께 병행했던것도 있어 식재팀의 인원 지원에 의해 본사직원 2명이 2주동안동안 새벽잠도 못 이루며 지원을 하여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모든 출고와 공사가 마무리되어 내년을 준비하는가 여념이 없었을텐데 올해는 아직 농성대 작업도 마무리가 진행중이다.

월동준비 마무리

이천에서의 마지막 월동준비는 김장 담그는 일이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함께 일하시고 땀흘린 아주머니들이 방



하하는 날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김장을 하며 "우리꽃" 전임직원이 수고하신 아주머니들과 함께 가 배운 파티를 즐겼다. 기타 모주말 및 전지소 컷팅작업도 진행중이며 하우스내 정리 작업도 진행중이다. 폭설을 대비한 원동장바퀴 벚단을 적소에 배치완료 하여 아직 단란반의 피해를 입지 않은 냉성을 이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생산에서도 육묘장에서는 현재 늦게 작업되어진 묘종의 유지를 위해 어중버스를 하고 다시 보일러를 이용, 일정 온

도를 유지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 12월의 중순에는 중부C.C. 코스관리부 임직원들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축구 및 탁구 를 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다. 농성대 옆못에 물을 빼고 봄에 메기,미꾸라지 등을 잡아 얼얼한 매운탕과 석화 및 삼겹살로 즐겨를 뽕뽕이속에 하나가 되는 자리가 이어졌다.

2006년을 마감하며...

올한해 이천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사가 분리되어 서울로 가고 포천부식물원으로 작업이 발령나고 하여 더욱이 식재작업까지년부터 계속 이어져 봄에는 작은 인원을 가지고 모든 출고 및 작업을 진행 해야 하는 어려움

도 있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숨기롭게 해쳐 나가는 지혜로움을 보여 주었다. 회사가 커진 만큼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들어와 교육생으로 이천연구소를 거쳐 갔으며 지금은 "우리꽃"의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기간동안은 힘들고 이련하지만 가 다나 싶을정도의 생각도 들었겠지만 모두 기분상력을 배양하고 현지 실무에 배치됐을때 기초가되고자했음을 지금쯤 모두 삼삼하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습가뱀게 달려온 2006년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천 연구소에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새벽 2~3시부터 내린 눈이 아침에 소강상태를 보인다. 다시 눈발이 나리고 있다.습습 제철 작업을 시작 해야겠다. 우리꽃 화이팅!!



1. 2 하우스 및 모주말 컷팅 및 정리작업
2. 폭설을 대비해 벚단을 가하루에 배치
3. 겨울을 대비한 육묘장 모습
4.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는 수생식물포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공영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2)3412-1281~2
팩스 : (02)3412-1283

우리꽃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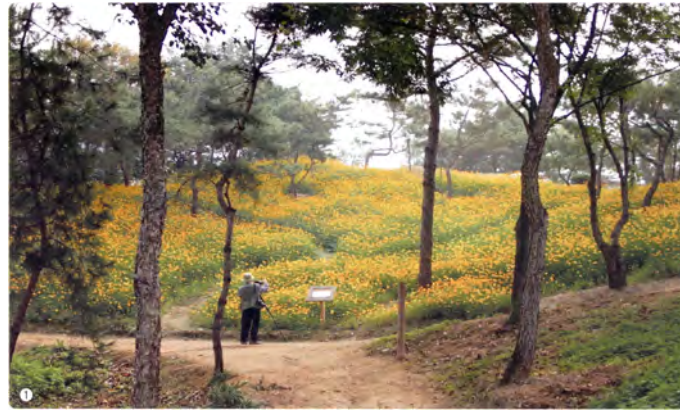
1. 중부고속도로 이용시
① 양주 IC ② 장호원방향 좌회전(4.5km)
③ 이천 수산리 이정표따라 좌회전(5km)
④ 막연 T자형상가면 좌회전(800m)
⑤ 남해화랑비로 입간만 앞 우회전

2.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① 이천 IC ② 장호원방향
③ 하이네스 지나 대원상가면 우회전 약(10km)
④ 송곡주유소(우측)
⑤ 남해화랑비로 입간만 앞 좌회전

3. 이천시내 국도 이용시
① 미란다초등학교 지나 좌회전(1km) ② 북하사거리 우회전
③ 성성, 모기방향 우측으로 빠져
④ 굴다리 아래로 좌회전 ⑤ 송곡주유소(우측)
⑥ 남해화랑비로 입간만 앞 좌회전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포천 부식물원 ⑥”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부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부식물원 앞에는 항상 붙어 나오는 말이 있다. 농업적 경관 식물원이 그것이다. 경관이란 눈으로 보았을때 한번의 조망으로 이해 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뜻한다. 올해 부식물원에서 한눈에 들어오게 볼 수 있었던 경관은 4~5월의 튜립정원과 6월의 양귀비들만, 6~10월의 무지개원이다.

10만송이 튜립

올 4월20일 오픈하면서 봄의 테마는 튜립이었다.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지나면 먼저 오른쪽 편으로 눈에 띄는 것이 원도벽돌로 만든 건물이다. 지붕을 추가로 올린 3채의 건물은 처음 관광농원으로 시작할 때 지어서 지은지 10여년이 지난지나 아직 처음과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정면으로 1,200평의 새로 만든 잔디밭이 보이고 가운데 길을 제외한 모든면에 10여종의 튜립이 파를 넣을 채 놓은듯 퍼져 있었다. 4,5월 튜립에 대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이른봄



방문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 대부분이 구근류로 주로 앞쪽 잔디밭에만 식재가 되어 있어 뒤쪽 시크릿 가든, 양귀비 들만, 백합원으로 가면 보여 줄것이 없었다. 2만평의 면적을 좁게 사용한 것이다. 어떤 이용객은 '말썹만 이렇게 해놓을것 같다'고도 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잔디밭에서 음라를 튜립외에도 뒤쪽 시크릿 가든 전면과 백합원 전면, 막가든, 7단목포, 무지개원까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튜립을 감상할수 있다.

무엇 보다 올해와 내년의 달라질 점이기도 하다. 튜립들이 식물원 전체에 고루 퍼져 있어 어느 곳을 가도 봄의 화려함을 만끽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넓어진 양귀비 들만

전세계적으로 양귀비 종류는 백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중 파파베르 송나페르(Papaver somniferum)와 파파베르 세티게르(Papaver setigerum) 2종은 마약으로 지정되어 제재가 금지되어 있다. 부식물원에서 보여주는 양귀비는 개양귀비 (Papaver rhoeas)와 아이슬란드 뽕베 (Papaver nudicaule), 튜립뽕베(Papaver glaucum), 오리엔탈뽕베(Papaver oriental), 캘리포니아 뽕베 (Scholtzia californica)등을 비롯한 기타 뽕베류들은 마약 성분이 없는종류로만 감상용으로 키우고 있다.

올해 양귀비 파종 면적은 약 3,500평으로 단일지에 파종을 했었지만 내년에는 약 5,000여평의 부지에 3곳으로 파종지역을 나누어 훨씬더 풍성한 꽃양귀비의 봄을 물결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 외 일년초의 군락

양귀비 외에도 북아나 들만에 안개초, 끈끈이대나물, 수레국화, 춘자국화 라인으로 파종하여 멀리서 봤을때 무지개를 연상하도록 파종을 하였다.

내년 달라질 모습
올 한해 미비했던 점중의 하나가 여러가지 편의 시설이었다. 꽃이 좋아 구경하는데 햇빛을 피할곳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년에 늘어난 명적만큼 휴식처와 편의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겨울철 눈썰매장을 개장할 예정이고, 식물원에 있는 나무에 꼬마 전구를 달아 밤에는 별빛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식물원을 개편하고 첫째였다. 양귀비와 튜립 또 여름이후의 백합원과 양귀비 들만에 새로이 뿌려 졌던 식물원에 대해 호평도 있었고 정미아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이력저번 손소라도 있었다. 이런 평가들을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의 'view'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것이다.



1. 백합이 지고난뒤 황화코스모스로 새단장한 모습
2. 올봄 튜립 개화 모습
3. 백합원 전면적에 튜립을 식재하였다.
4. 양귀비 파종면적이 올해보다 더 늘었다.
5. 양귀비 파종 준비 모습
6. 꽃양귀비(Papaver rhoeas)
7. 튜립 가을식재 모습
8. 식물원 앞 잔디밭 뽕베만아니라 시크릿가든 등도 비롯해 전체적으로 튜립을 새로 식재했다.

포천 부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



2006년, 우리꽃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고객여러분의 사랑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더욱더 업무를 전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3월에는 중국현지법인 일조화선자원에유한공사를 설립하여 12만평의 농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 각종 세계원예박람회에 참석하여 세계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꽃의 우수한 품종을 계속 선보여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록잔디패랭이가 품종출원된것을 계기로 계속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계을리하지 않을것이며 그 일환으로 경희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월에는 국내최초로 숙근지피식물 품평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속에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우리조경인상과 더불어 고객 여러분에게 환원사업의 일원으로 매년 품평회 자리를 마련할 것입 니다.

우리꽃은 세계최고의 숙근초 전문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꽃' 이 있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고객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꽃은 고객 여러분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우리꽃 임직원 일동